

“우리 사회 지력의 밑거름은 출판”

‘서울출판인 포럼’ 조찬 강연 전문

조 순

서울특별시장

지금 우리는 엄청난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화·세계화·지방화로 요약되는 세계사의 거대한 물결이 몰아치고 있다. 국경의 장벽이 허물어짐에 따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밀접하게 연관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단독으로 존립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가지 형태의 경쟁이다. 경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경제적인 경쟁이지만 그밖의 영역, 이를테면 문화적 측면이나 군사적 경쟁도 있다. 그 경쟁의 주체는 주로 기업과 개인, 그리고 각국의 단체(지방단체 및 비영리단체)다.

물론 국가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국제무대에서 경쟁하는 기업은 어떤 ‘나라’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많고 대부분 다국적(따라서 무국적) 기업이며, 개인의 소속 기관도 꼭 어떤 국적이 있는 단체에 소속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21세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다.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경향을 유추하여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발동할 수 있을 따름

이다.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민족이 시대의 대세 속에서 몰락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번영을 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지력(知力)이 필요하다. 21세기를 사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21세기는 지난 어떤 세기보다도 변화가 크고 빠를 것이며, 이 세계에서 살아남고 번영을 누리 기 위하여 우리는 개인의 차원에서나 국가 내지 민족의 차원에서나 과거 어느 때보다도 탁월한 지력을 필요로 한다.

21세기에 필요한 ‘지력’

21세기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지력을 세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는 21세기의 물결 내지 풍향을 알고, 적시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다. 둘째는 21세기적인 상황은 어떤 모순과 문제를 우리에게 갖다줄 것인가에 관한 우리의 지적인 판단력이다. 셋째는 우리나라의 전통, 역사 및 현재의 특수 사정에 비추어 안보·외교·경제·사회 등에 관하여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관한 선택의 문



‘서울출판인 포럼’ 조찬 모임에 초청된 조순 시장의 강연모습.

제다.

21세기는 아직 수년이 남았으나, 21세기적인 상황은 이미 전세계에 전개되고 있는 지 오래다. 정보화시대라 불리는 이 세계는 통신기술을 비롯한 여러가지 첨단기술의 발

전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는 대규모공장, 대량생산 시스템, 규격화된 제품, 일사불란한 경영체제가 비효율적으로 되고, 그대신 소규모업체, 소량생산 시스템, 다양한 제품 및 자유롭고 독창적인 경영체제가 효율을 발휘

스케치

서울시장과 출판인들의 만남

서울출판인 포럼 4월 모임 ... 출판인 40여명 참석

서울출판인 포럼 4월 조찬 모임은 지난 4월8일 아침 7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조선호텔 이조룸에서 조순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서울출판인포럼의 40여 회원 대부분이 참석한 이날 자리는 한길사 김연호 사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조시장의 초청은 제자이기도 한 비봉출판사 박기봉 사장의 주선으로 이뤄졌다는 후문.

《21세기 지력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주제로 약 30분 동안 강연한 조시장은 우리 사회를 튼실히 가꾸기 위한 지력은 곧 출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곧이어 출판인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

는데, 예정된 순서였음에도 선뜻 질의하는 출판인이 없어 사회자가 지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예출판사의 전병석 사장이 “서울시청앞 지하철역 공간에 양서를 전시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자, 조 시장은 즉석에서 비서에게 조치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출판과 관련 없는 내용의 질문들이어서 아쉬움이 남았다. 모처럼 허심탄회하게 출판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나마 대한출판문화협회 나춘호 회장이 끝인사말과 함께 제안한 두가지 의견에 조 시장이 적극적인 반

응을 보인 것은 다행이다.

나회장은 첫째, 날로 의미가 퇴색해가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울시가 각 건물마다 조그만 자료실(도서실) 마련을 권유하는 공문을 띄워주는 게 어떠냐, 둘째 전통문화의 거리로 활기를 띠고 있는 인사동을 ‘책방거리’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시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앞으로도 이런 구체적인 의견은 얼마든지 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었지만, 출판계가 이제는 상식적인 원론의 강조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과 대안으로 행정부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출판인포럼은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불황타개를 위한 독서인구 창출방안으로 출판사간 사보발행, 출판사 출자 서점 개설 등 새로운 자구책을 논의한 바 있다. 회원은 다

음과 같다. (출판사 가나다순)

유제동(교문사) 강해작(기문당) 박종만(까치) 조상호(나남) 강희일(다산출판사) 김태진(다섯수레) 한철희(돌베개) 황근식(등지) 전병석(문예출판사) 임성규(문인당) 강태형(문학동네) 김병익(문학과학사) 김현표(미진사) 박맹호(민음사) 윤재승(민족사) 이경용(밀알) 윤형두(범우사) 배효선(법문사) 박기봉(비봉) 소병훈(산하) 심만수(살림) 김신혁(서광사) 최선호(세계사) 이동명(언어문화사) 이기웅(열화당) 이문현(영진출판사) 박길부(예하) 이종천(오늘) 윤석금(웅진출판사) 이정일(일진사) 최청수(자작나무) 김경희(지식산업사) 김병준(지경사) 이시영(창작과비평) 허창성(평화출판사) 정성현(청년사) 고영수(청림출판사) 김연호(한길사) 홍승대(한양출판사) 김중수(한울) 송영석(해냄) 조근태(현암사) 유대기(홍익미디어) 이승용(홍익출판사)

— 김지원 기자

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20세기 산업경제 시대의 생산요소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토지(또는 자원)·노동·자본 등의 물적이고 하드웨어적인 것이 중요시되었으나, 21세기 탈산업경제시대에 있어서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20세기에 기업경영은 거의 남자의 독무대였지만, 21세기에는 여성이 크게 기업경영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면에 있어서는 20세기에는 이론과 실체가 대부분 봉쇄경제(closed economy)를 전제로 수행되었지만, 21세기에는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와는 아주 별도로 단독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0세기 봉쇄경제시대에는 정부가 복잡한 규제를 만들어 복지나 분배에 관한 정책을 폈지만, 21세기에는 폭넓은 규제완화가 필요하게 된다.

정치면에 있어서 20세기에는 국가 중심의 사고와 체제가 일반적이었지만, 21세기에는 국가의 영향력이 점차 퇴색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게 중요시될 것이다. 21세기에는 20세기에 있어서처럼 대중(mass)을 상대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소규모의 개성 있는 사람들의 집단인, 말하자면 소중(小衆)을 상대로 하는 정치가 될 것 같다. 21세기는 20세기와 같은 대의정치보다도 소중들의 직접참여 체제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행정면에 있어서도 21세기는 20세기와 다를 것이다. 나라에 따라 사정은 다르겠지만, 20세기는 대체로 중앙집권적인 정부가 행정을 좌우한데 반해, 21세기에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될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정책에서 규제완화와 아울러 행정면에서의 지방분권이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아주 필요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규제완화나 행정의 분권화는 엄격한 법치주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21세기의 사회는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젊은이들도 소득의 증대를 위한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지 않으며, 가급적 여가를 즐기고 개성있는 생활 스타일을 마련하기를 원할 것이다. 21세기에는 또 노동절약적(labor-saving)인 발명이 많아질 것이므로, 모든 경제에 실업문제가 광범위하게 등장할 것이 예상된다.

교육면에 있어서도 21세기는 많은 나라에서 종래에 있었던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교육방법이 비효율성을 드러낼 것이다.

이상과 같은 21세기적인 상황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잘 적응해 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일 것이다. 많은 부문에 걸쳐 이 적응이 늦어짐으로써 우리나라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경제정책은 아직도 60년대, 70년대의 방법과 관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경제가 필요로 하는 개인의 창의력이 살아나지 못한다.

비대해진 대기업군과 빈혈상태에 있는 중소기업군으로 성립되어 있는 이중적인 산업구조는 활발한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도록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경영유착의 기본틀 위에 구축된 정치행태로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깨끗한 정치, 비전있는 정치를 실현하기 어렵다. 행정도 할거형 중앙집권의 틀이 요구하는 규제완화와 지방화가 요구하는 분권화를 실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총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난날 냉전시대에 정부주도의 경제사회 운영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앞으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우주적 경쟁시대의 어려움

글로벌한 견지에서 볼 때, 21세기의 우주적 경쟁시대는 지금까지 장미빛으로 그려져 왔지만 사실 많은 어려운 문제가 파생할 것이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실업의 증가, 빈부격차의 확대, 도덕성의 타락, 식량의 부족 및 환경의 오염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의 오염은 후진국일수록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환경에 대하여 변변한 대책이 강구, 시행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실업문제, 빈부격차의 확대문제가 크게 대두되리라 생각한다. 나라에 상당한 지력이 있어야 이들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21세기에 관한 보편적인 문제와 아울러, 우리나라에는 상당한 수준의 지력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안보·통일·외교의 문제, 경제침체의 문제, 도덕성 타락의 문제가 있다.

서울시의 시정 문제 가운데 제일 큰 것이

시민의 안전이듯이, 나라의 경우에도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또 통일의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어떤 것이든간에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심적 및 물적 준비의 부족은 앞으로 어떤 사태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에 혼란과 타격을 줄 염려가 있다.

남북간의 대결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북한은 완전히 패배했다. 통일호리는 우리 민족의 비행기는 불원장래, 어딘가에 착륙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비행기의 착륙을 가능한 한 부드럽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지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공산주의는 증오하되, 북한 동포에 대하여는 사랑의 원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이 저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동포에 정신이 발휘되지 못한다면, 실사 물리적으로 통일이 된다고 한들, 어떻게 정신적으로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도의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과제다. 우리는 지난날 경제발전에 국력을 투입하여 경제적으로는 일단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 우리는 원시적인 지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정부주도하의 수출일변도 발전전략의 추구는 경제구조의 불균형을 너무 크게 만들어, 경제 전체 경쟁력의 저하현상을 가지고 왔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 그리고 정치를 연결하는 유착관계는 지도층의 부패와 도의적 타락을 가져왔다. 나라의 기본이 되는, 특히 21세기 경쟁사회에 필요한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에 '신뢰'가 산산조각이 나 있다. 신뢰가 없는 사회에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신뢰가 있고 없고는 도덕성의 문제이지 어찌 지력의 문제냐고 물으지 모른다. 신뢰가 없는 사회는 그 사회의 기풍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사회의 기풍이 어떻게 되느냐는 그 사회를 주름잡은 사람들의 지혜 여하에 달려 있다는 의미에서 이것도 역시 지력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이상 간단히 지력의 여러가지 측면을 살

펴 보았다. 첫째, 21세기 사회의 성격에 관한 지력은 사람들의 지식(knowledge)의 증대 내지 감지력(perception)의 작용에 의하여 확보될 수 있는 문제다.

이들테면 21세기 산업의 특징을 알고 유용한 투자를 하자면 그 산업에 관한 지식 내지 감각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 지식을 가지고 새 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는 과감히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산업 구조조정을 하고 기업 혁신을 하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21세기 사회의 모순과 문제도 경제의 체질에 관한 지식, 분석력 및 상상력을 통하여 예견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특수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이에 대한 정책선택의 문제는 역사와 사회 및 철학에 관한 우리의 종합적인 판단력 내지 지혜(wisdom)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명감으로 지식·기술 생산해야

이와 같이 '지력'이란 말에는 knowledge, Intelligence, perception, wisdom 등 여러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이나 사회나 노력과 훈련에 의해 증진될 수 있다. 여기에 지력과 출판업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좋은 출판물이 많이 공급되는 사회의 지력은 그만큼 많고, 출판물이 좋지 못하면 젊은이의 지식과 지혜를 촉발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는 좋은 출판물의 수요가 부족하고 또 공급도 부족하여 이것이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교육(가정교육부터 대학·사회교육에 이르기까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는 쓸모 있는 지식과 기술의 생산도 부족하고, 지성과 지혜의 생산은 더 더욱 부족하다. 대학이 주변에는 환락가가 있을 뿐 대학가다운 분위기가 없다.

한국민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반지성적(anti-intellectual)인 사고와 생활관습을 지니게 되었다. 지력산업의 부족, 지력활동의 부족 속에서 지력 자체가 멸시를 받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출판업을 하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명감을 가지고 분발해 주시기를 바란다. ◆